

■ 수입개방 불구하고 한우값 이상급등 왜?

안전하고 탁월한 맛…소비자 홀렸다

지난 2007년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지난해 쇠고기 판매량이 급증한 데 이어 한우의 유통망 산지가격이 573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490만원까지 곤두박질쳤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추구, 쇠고기 이력 추적제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품관리, 유통망 확장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이력추적제 정착…'가짜한우' 추방

지리산한우 등 브랜드제품 판매망 확충도 한몫

◇한우값 고공행진 왜?=한우 가격의 고공행진은 한우가 수입 소보다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광우병 우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는 당국과 농가들의 노력이 작별화에 주력했다.

실제 광주·전남은 비롯한 전국 농협들은 그동안 쇠고기 이력 추적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꾸

준히 정착하는 한편, 흥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소의 사육과정에서 '4무원칙'(무항생제, 무항균제, 무호르몬제, 무유해미생물)을 철저히 준수했다. 또 유통, 사양, 사료 등을 통일해 1등급 이상 쇠고기 수준을 유지하는 등 맛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한대웅 축산팀 차장은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철저한 유통망 관리와

전남 농가 재해보험금 240억

작년 전국 2위…배 농가 우박피해 98% 차지

지난해 전남 지역 농가 등이 수령한 재해보험금이 240억2천500여만원으로 경북(266억6천9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대부분은 우박피해가 집중된 나주 지역 배 재배농가에 지급됐다.

이는 1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에 판매된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을 집계한 결과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땅은 감 등 7종목이다.

전남에서는 모두 4천803개 농가가 6천319건의 보험에 가입, 한해 동안 보험료 83억6천200여만원을 내고 보험금 240억2천5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배 피해 보험금 지급액

로 6배 가량 매출을 끌어올렸다. 담양대숲닭은 한우는 2008년 총 670두를 판매했으나 지난해 무려 1천300두를 팔았다. 영광 청보리 한우도 564두에서 1천114두, 함평천지한우도 1천211두에서 2천200두로 판매량이 치솟았다.

한우 고기 판매량이 늘면서 광주·전남 지역 산지 한우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협전남본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4·4분기 가축동향 조사 결과 한우 수컷(600kg 기준)의 월 평균 산지가격은 지난해 11월 573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는 2001년 11월의 554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1일 현재 광주·전남 지역 한·육우 사육 마리 수는 44만5천 마리로 1년 전보다 7만 마리(9.8%)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 사육되는 한·육우는 모두 6천 마리로 1년 전보다 31.9% 상승했다. 전남은 43만9천 마리로 8.5% 늘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주야 4시간씩 파업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들은 18일 오전 광주공장 본관 앞에서 '임ту 승리를 위한 파업 선포식'을 갖고 주야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멈춰선 기아차… 손실액 '눈덩이'

노조 부분파업 확대

"내주 전면파업 불사"

기아자동차 또 다시 멈춰섰다.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노조가 부분파업을 확대하면서다.

18일 기아차 노조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공장을 비롯해 경기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등 전 사업장별로 '임투승리를 위한 파업 선포식'을 갖고 주야 4시간씩 파업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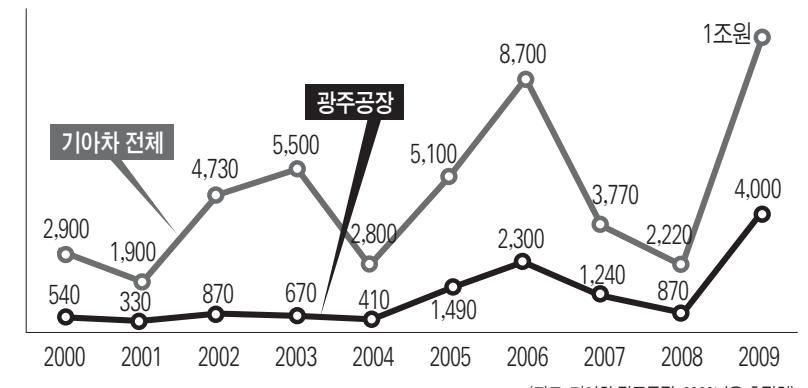
노조는 이날부터 20일까지 3일간 주야 4시간씩 파업을 진행하고, 21~22일에는 주야 6시간씩 파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전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파업으로 기아차 생산라인이 멈춰온다면 기아차는 1조원대에 육박하는 매출 손실을 입게 됐다.

지난해 11차례 파업으로 이미 4만8천대의 생산 차질과 8천6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기아차 광주공장도 이번 파업 확대로 생산차질 2만7천여대, 매출 손실 약 4천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사 20년 연속 파업에 들어가면서 지난 2000년부터 이번 파업 까지 4조7천620억원의 매출 손실을

■ 기아자동차 파업 손실



(자료: 기아차 광주공장, 2009년은 추정치)

일)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가 예고한대로 이번주 내내 파업이 진행되면 피해액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서 것으로 전망했다.

1만8천여대의 생산 차질과 3천1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기아차 광주공장도 이번 파업 확대로 생산차질 2만7천여대, 매출 손실 약 4천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사 20년 연속 파업에 들어가면서 지난 2000년부터 이번 파업 까지 4조7천62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공장 매출 손실도 1조2천720억원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해를 넘긴 파업으로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액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파장됐다. 일감이 없어 설비를 돌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 지난해 1월부터 임대료 통제를 받았는데 특근과 임대 못한 부분까지 손실로 들어갔다"며 "1조원의 손실은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매입 임대아파트 피해 상담소 운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회장 도성철)가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매입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 활동에 나선다.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18일 최근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의 잇단 부도와 잠정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확산(광주일보 1월12일자 8면)됨에 따라 광주시회 사무실에 '매입임대아파트 피해임대아파트 상담소'를 설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법률 상담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062-523-230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롯데百 광주점 설 배송 알바 120명 모집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배송, 포장, 상담 및 접수 등을 맡을 아르바이트 사원 100~120명을 모집한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로 일급 4만5천원이 지급되며,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한다. 담당 업무는 상자, 신선식품 배송 및 부재 배송 리콜, 행사보조, 근거리 배송, 상품권 포장 등이다.

지원은 채용 관련사이트나 1층 안내데스크, 각 매장에 별도로 마련된 접수처 등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221-0322~3.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호, 임원 30% 감축

부사장급 이하 62명 퇴임 등 고강도 구조조정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8일 계열사 임원 수를 30% 감축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날 210명의 부사장급 이하 임원 중 62명을 퇴임시키고 승진자 없는 임원 전보 인사 내용을 확정해 각 계열사에 통보했다.

지난 12월 18명의 계열사 사장단 중 7명을 퇴임시킨 금호아시아나는 이번 인사로 전체 임원 수가 228명에서 159명으로 30.3%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박삼구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전략경영본부 상무 등 금호가 3세들도 승진하지 못했다.

이번 인사는 애초 계획(20%)보다 감축 비율이 10% 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는 그룹의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주택 대표전화 010-7570-7525

주택/기증/상가 손해보험금 010-8011-2017

증권/보험 대표전화 010-7570-2142

증권/보험 대표전화 010-6386-6443

증권/보험 대표전화 010-6386-6443